

법왕[法王]

불법(佛法)으로 왕권을 강화하다

미상 ~ 600년(법왕 2)



부여 왕흥사지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1 개요

법왕(法王)은 백제의 제29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599년~600년이다. 즉위하자마자 살생을 금하는 명을 내렸다. 이듬해에는 왕흥사(王興寺)를 창건하면서 30명이 승려가 되는 것을 허가하였다. 법왕은 2년이라는 짧은 재위기간에도 불구하고 불교 윤리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2 법왕의 즉위 과정에 대한 논란

법왕의 이름은 선(宣) 또는 효순(孝順)이고, 성은 부여씨(扶餘氏)이다. 대부분의 문헌에서 제28대 혜왕(惠王)의 맏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수서(隋書)』에는 제27대 위덕왕(威德王)의 아들이라는 기록도 있다. 어머니와 왕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아들은 부여장(扶餘璋)인데, 후에 무왕(武王)이 되었다. 무왕이 조카인 복신(福信)을 당에 사신으로 보냈다는 기록으로 보아, 무왕 외에 또 다른 아들이나 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高齡)의 혜왕이 재위 2년 만인 599년(혜왕 2)에 죽자, 법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법왕 역시 즉위한 이듬해 여름에 죽고 말았다. 시호는 법(法)이다. [관련사료](#)

법왕의 즉위과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첫 번째 주장은 다음과 같다. 498년(위덕왕 45), 위덕왕은 수(隋)에 사신을 보내 수가 고구려를 공격하면 백제가 항도가 되겠다고 자청하였다. 그러자 고구려가 이를 알고 백제 변경을 쳐들어와 약탈을 자행했다. 이때는 고령의 위덕왕이 사망 3개월 전으로, 왕의 통치력이 미약했을 시기이다. 당시 위덕왕의 동생인 혜왕 역시 고령이었고, 아들인 아좌태자(阿佐太子)는 왜(倭)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고구려전을 주도한 사람은 혜왕의 아들이자 위덕왕의 조카인 법왕이었다. 이 과정에서 법왕은 일종의 정변을 통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위덕왕이 죽자 왕위계승서열이 앞서는 자신의 아버지 즉, 혜왕을 명목상 즉위시켜 귀족들의 반발을 피했다. 그리고 혜왕이 죽자 자연스럽게 법왕이 즉위하게 되었다.

반면에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면서 위덕왕대 혜왕의 활약상을 주목하기도 한다. 혜왕이 위덕왕 초에 왜에 청병사로 갔던 사실로 보아, 위덕왕의 정치적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아좌태자가 왜에 계속 체류하는 상황에서, 꾸준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진 혜왕은 성왕계 왕족의 일원으로서 위덕왕의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리고 뒤이은 법왕의 즉위 역시 아버지인 혜왕이 이룩한